

한국 자영업의 위기 요인과 개선 방안

김재호*

*청운대학교 무역물류학과

e-mail:kais@jaehokim@chungwoon.ac.kr

Crisis Factor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elf-employment in Korea

Jae-Ho Kim

*Dept. of Trade & Logistics,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자영업은 대면 소비의 급격한 감소, 부동산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가 증가, 그리고 소비자 가격 저항의 악순환에 직면했다. 팬데믹이 종료된 2024년 이후에도 소비 패턴은 기존 방식으로 복귀하지 않았고, 이는 자영업 위기를 심화시켰다. 이에 더해 국내의 추가로 정치적 불안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정책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고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 결과 자영업의 폐업이 치솟게 되었다. 그에 따라 실업율이 높아지고 세수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순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자영업의 위기 요인을 파악하고,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채 관리 체계 재구조화, 직업교육을 통한 자영업 비용 감소, 디지털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경제 불황의 악순환을 해소하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서론

팬데믹(Pandemic) 기간 중 한국은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대면 중심의 쇼핑 패턴은 빠르게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가속화 되었다.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소비 방식이 이니어도 충분한 효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팬데믹 기간 중 학습하게 되었다.

2023년 5월 팬데믹의 공식 종료 후 많은 자영업자들은 2021년 이전의 상황이 도래하기를 기다렸으나 소비자들은 이미 길들여진 상황에 익숙해 했으며 돌아가기를 거부 했다. 이미 새로운 소비가 시스템화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팬데믹 기간 중 부동산 상승과 금리의 상승은 자영업자의 원가 상승을 불가피하게 이끌었으며 이는 소비자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특히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영업위기론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전체적으로 소비시장을 위축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이는 창업 열풍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자영업의 선순환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이 되고 있다.

2024년 12월 갑작스런 계엄선포와 해제와 같은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경제에서 정치로 옮겨가고, 국제적으로, S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 제조업이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역 중심의 자영업은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국내 정치의 과도기적 상황은 자영업의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결국 자영업자는 각자도생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위기는 일자리의 감소 통한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가의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나아가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지면서 지속적인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 또는 사회 각층은 더 늦기전에 정확한 분석을 통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이후 2024년 및 2025년의 자영업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이 어떻게 자리매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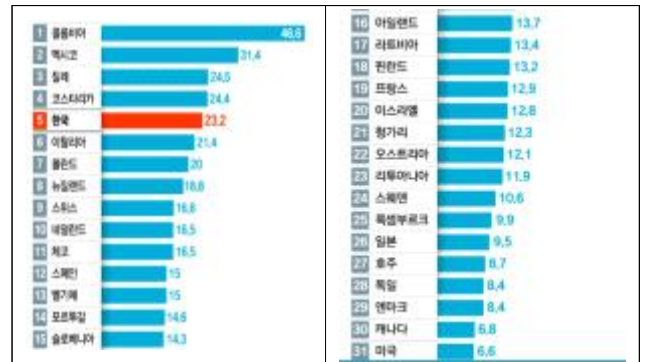
2.1 자영업의 정의

한국에서 자영업이란 개인 또는 소규모로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형태를 의미한다. 자영업의 주체인 자영업자는 고용주 없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의 관리, 운영,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소매점, 음식점, 프리랜서, 개인택시 운전자 등이 대표적인 자영업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며, 상법상 상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통계청 기준으로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체(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을 둔 사업체(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나뉘어 집계된다.

자영업자는 주로 사업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고정 급여가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1] 한국의 창업 현황[4]

2.2 한국의 자영업 현황 및 특징

자영업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한국에서는 소매점, 음식점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1960년대 초 자영업 비율은 37.2%로 높았으나, 2024년에는 19.7%로 감소하며 자영업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1960년 이후부터 2020년대까지의 자영업자 비율 및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1][2]

[표 1] 한국의 창업 현황

시기	자영업자 비율 및 현황	원인 및 특징
1960년대 초	- 비임금근로자 비율: 68.5% - 자영업자 비율: 37.2%	농업 및 소규모 상업 중심의 산업 구조 반영
1980년대	- 1989년 자영업자 비율: 28.8% - 처음으로 30% 아래로 감소	도시화 및 정규직 고용 증가
2000년대	- 2002년 자영업자 수: 621만 2천 명으로 최고치 기록 - 이후 감소 추세	과당경쟁 및 경제 구조 변화
2020년대	- 2023년 자영업자: 563만 6천 명 - 전체 취업자의 19.7% 차지	자영업 감소 추세 지속
OECD 비교	- 2018년 자영업자 비율: 25.1% - OECD 평균(15.3%)보다 여전히 높음 - 2022년 자영업자 비율: 23.2%	산업화와 노동 시장 변화로 감소 추세 지속

과거에는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자영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산업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그 비중이 꾸준히 줄고 있다. [3]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은 25.1%로 OECD 평균인 15.3% 보다 높았다. 2022년 기준으로 봐도 23.2%로 이는 콜롬비아(46.6%), 멕시코(31.4%), 칠레(24.5%)등 보다는 낮지만 OECD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정도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특징은 여성, 50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아지

2.3 팬데믹 이후의 자영업 현황 및 원인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2024년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0% 아래로 하락하였다. 이는 1963년 이후 처음으로 자영업 비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자영업자의 수도 2024년 말에는 550만 명으로 떨어졌다. 2025년 들어 20만 개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했으며, 자영업자의 75.7%는 월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 금액은 1억 2천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월 이자 부담은 84만 원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9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금융권에 연체가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더욱이 50대 이상의 고령층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는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표 2] 2024년 한국의 창업 현황

시기	자영업자 비율 및 현황	원인 및 특징
2024년	- 63만 6천 명, 19.7% - 자영업 비율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감소	경제 구조 변화 및 과당 경쟁 영향

2025년도는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4년과 유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

2.4 자영업 위기의 요인 고찰

언론 및 연구에 의하면 자영업 위기의 요인은 첫째, 경제적 요인을 제시한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후 지속된 경기 부진과 내

수 침체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 등과 연계된 과도한 개인 부채는 소비 확산을 억누르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특정 업종별 과도한 경쟁이다. 특정 지역의 동일 업종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적절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자영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성실성이 업종의 성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정부의 불균형 지원이다. 정부는 대출 증대, 이자 보전, 배달비 지원 등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대출액이 많은 자영업자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정책이다.[5] 네 번째 요인으로는 자영업자의 높은 대출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 외 4차 산업 및 디지털 전환 등의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 등을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2.4 해외의 자영업 상황

공통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시장 잠식, 대면 서비스 시장의 축소, 금리 상승 및 무역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본의 경우 최근 쌀 값이 상승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도쿄 등의 외식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외식업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료 등이 매출의 25%로 안정된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미국의 경우 자영업 비율이 10% 정도로 안정적이며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각종 규제 등이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각 나라의 정부 지원제도 역시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3. 결론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율은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60년대부터 이어진 농촌의 해체와 인력 중심의 산업 구조 아래에서 자영업은 중산층을 꿈꾸며 상류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유효했으나, 생산성의 향상으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상황이 도래하고 온라인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직면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진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적 합의에 의한 메이커스 운동이 필요하다. 즉 지역 장인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 촉진을 계몽하는 것이다.

둘째, 자영업자의 부채관리이다. 대출 기간 연장과 대출 금리 인하를 통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업종 및 취업으로 인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업자 중심의 대출이 개인 중심의 대출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의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이는 직업 교육을 통해 신사업으로의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우선은 퇴직자가 자영업자로 진출하는 상황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는 지방의 활성화이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인구소멸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으로의 업소 이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역할을 주고 정부지원과 자체 매출을 통한 복합적 수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수가 교대하면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화다. 특히 시장을 글로벌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것이 좁은 내수 시장을 극복하는 방안이다. 특히 청년층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상인으로 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창업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되어 진다는 것을 명심하여 더 많은 기업가정신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생계형 창업자들이 창업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위기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과는 다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원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자영업자도 높은 기업가 정신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참고문헌

- [1] www.index.go.kr
- [2] sri.kostat.go.kr
- [3] <http://www.topdigital.com.au/news/articleView.html?idxno=11518>
- [4] <http://www.joongang.co.kr/article/25280471>
- [5] 24년 연간창업동향 (2024), 중소기업부,
- [6]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9196.html>